

용현초등학교

3학년 3반

우리 이야기



차례

## 시의 세계

인천용현초등학교 3학년 3반

### & 창작 시

반짝반짝 별 • 고은별

남긴 밥 • 김봄

바람 • 김태현

샤크의 모험 • 방민준

마음의 꽃 • 이예희

가을길 • 이신우

너와 나의 추억 • 이하율

검정과 흰색 사이 벽 • 이하준

알록달록 색깔 • 양예서

살랑살랑 꽃 • 서은솔

즐거운 우리반 • 신서원

무지개 • 정유철

나의 꿈 • 조하윤

포도의 꿈 • 최봄

& 시화

콩, 너는 죽었다 • 고한결

무지개 파라솔 • 김시현

달팽이 • 노윤채

바람의 길 • 민지우

콩, 너는 죽었다비 • 박찬솔

오리 발에 불났다 • 여민준

입 • 오진우

참새 • 윤민준

산길 • 오은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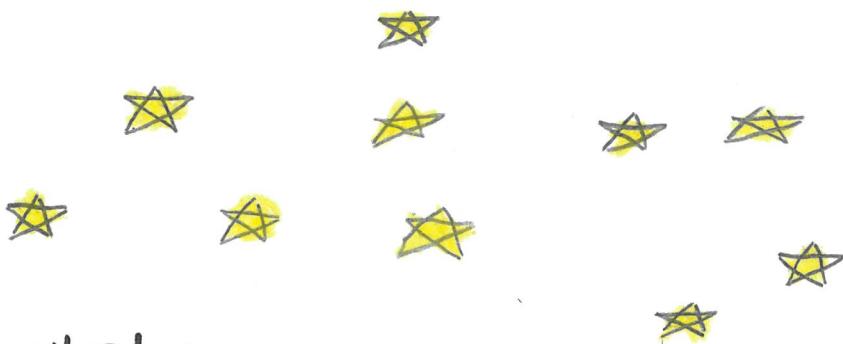
사슴뿔 • 이예준

곰돌이에게 • 최지우

여름 • 황성윤

# 반짝 반짝 별

## 흘,그림 고운 별



아빠와 함께  
별을 보았다.

별은 노란색에  
반짝반짝  
빛이 났다.

나는 별들에  
이글을 하나  
씩 차워주었다.



# 남긴 밥

글: 김봄 그림: 김봄

강아지가 먹고 남기  
밥은 주가 왔서 먹고  
개미도 왔어 먹고  
참새도 왔서 먹고  
개미도 왔어 먹고  
그릇이 반짝반짝  
해혔네.

다음에 남기고 먹어야겠네.  
주인 하텐한 그릇 더~!



# 바람

가을 김태현 그림 김태현

봄 바람은 살랑살랑

여름 바람은 거칠거칠

가을 바람은 산뜻산뜻

겨울 바람은 너무 차가워

손발이 얼어버릴 것 같다.

겨울  
햇빛을 조물조물

손도 따뜻하고

내 마음도 따뜻해졌다.

봄

여름

秋冬

# 샤크의 모험

바다 속

글그림방민준

샤크 삼여

바다친구들을

괴롭혔네.

“오늘은 또 누굴 괴롭히지?”

앞에 먹이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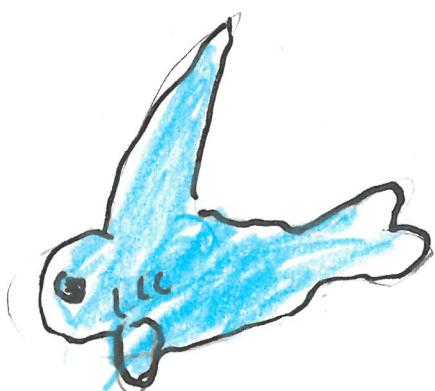
듬뿍 물었는데

배 위로 올라갔네.

그런데

샤크는 숨이 막혀죽고

바다는 평화!



# 마음의 꽃

괜찮아,

실수로 친구의 물을 엎었다.  
친구의 그림이 이상해졌다.

“미안해”  
“괜찮아”

고마워,

친구가 준비물을 안 가져왔다.  
그래서 내가 빌려 줬다.

“고마워”

미소방긋

글: 이예화



# 가을길

글그림 이선우

학교 가는길

가을바람이

나를 휘감싸네

낙엽은 살랑살랑

하늘은 푸드득이

내 마음도 가을하는 그림

처럼 하다.

벌써 가을인가?



# 너와 나의 추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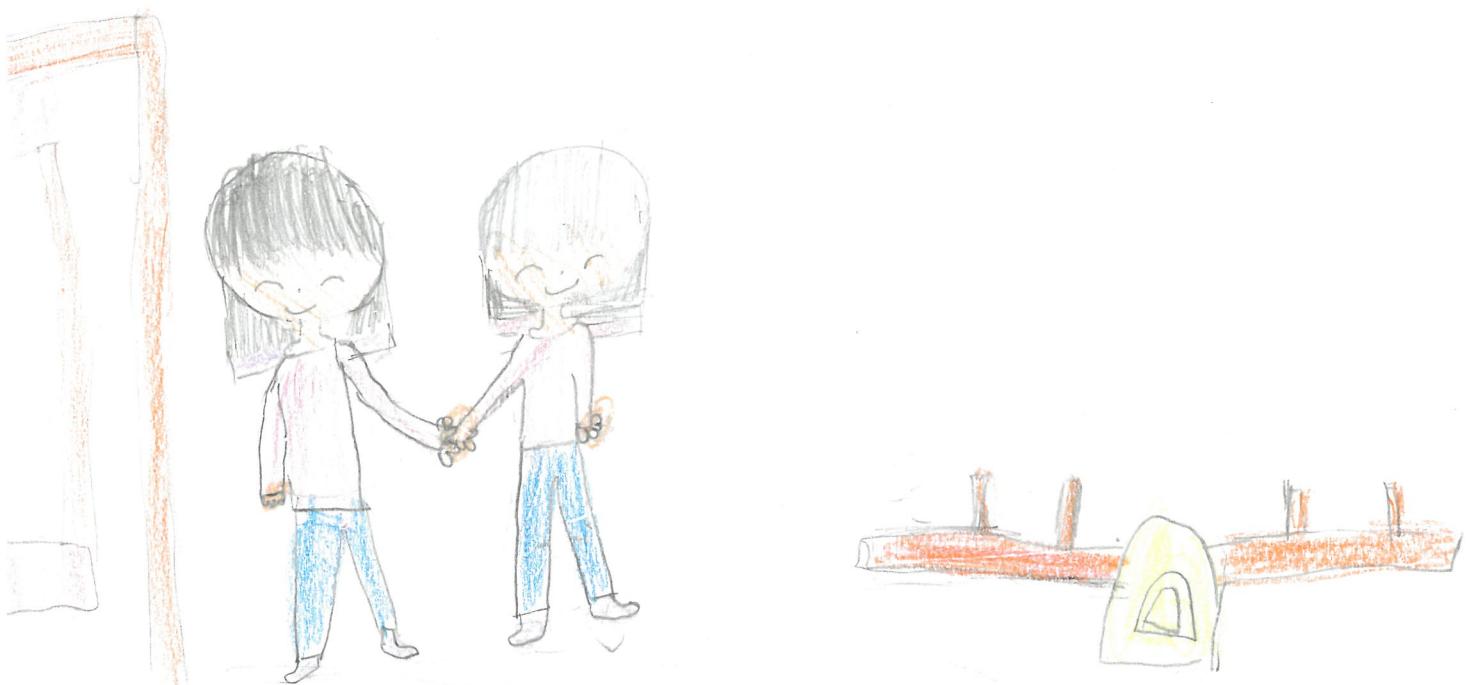
글·그림: 이하율

너와 나의 추억이  
재미있었다.

우리가 신나게 뛰어놀던 때가  
제일 재미있었다.

너와 나의 추억.

다시 돌아갈 수 있으면  
다시 돌아가서 재미있거  
또 놀고 싶다.



검정 고양이 사이 벽

검정 이랑 흰 새  
놓고 싶은데

그리고  
이학준

벽이 있어 못 가

검정이 죽먹으로 벽을

안 놓고 싶어!

그냥 벽에 가겠네.



알록달록 색깔

글, 그림 양예서

알록달록 색깔

여러 색깔 모여 무지개

붉은 색깔 별강

밝은 색깔 노강

시원한 색깔 파강

모든 색 모이면 감정

아무것 없음 하양

알록달록 색깔

여러가지 색깔

# 살랑살랑 꽃

글, 그림: 서율

아주 예쁜 꽃들

살랑살랑 온 곳에 있는데

핑크꽃 주황꽃  
여러색깔 꽃들

아주아주 예쁜 꽃들

여기 저기다 있는데



# 즐거운 우리반



글.그림. 신서원



우리반은 항상 웃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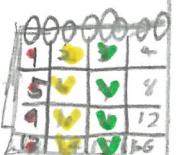
한명이 즐거우면 다같이 즐거워요



즐거운 우리반

힘들어도 도움주어 더 즐거워요

우리반은 항상 웃어요.



하하하하 소리가 들려요.

웃음 가득 우리반



개구쟁이 덕분에 우리반 모두 덕분에  
웃음소리 들려요.



# 무지개

글.그림: 정유철

비가 온다.  
“비야 그만  
오렴”  
오이 한마디에

비가 그친다.

비가 남기고 간  
무지개를 보며  
다시 외친다

“비야 다시 와서  
너가 남기고 간  
무지개를 가져가렴”

“어” 그새 달님이 왔다.



# 나의 꿈!



그림, 글 누운

“자 오늘 나의 꿈을 발표해볼까요?”

오늘은 꿈을 발표하는 날이다.

“지성이, 소라, 예나, 사라, 소원이, 마지막 우리”  
헉! 빨리 나의 차례가 되다.

“우리야?” “네!”

“저의 꿈은 ‘나의 꿈 없는 품이 있는데 지어서 해야지’

“저의 꿈은 농구선수입니다” “멋진 꿈이네  
사이체수업 꿀!” 나의 꿈은 뭘까? 나눠갖습니다.

“어딨어?” 엄마 나의 꿈은 뭘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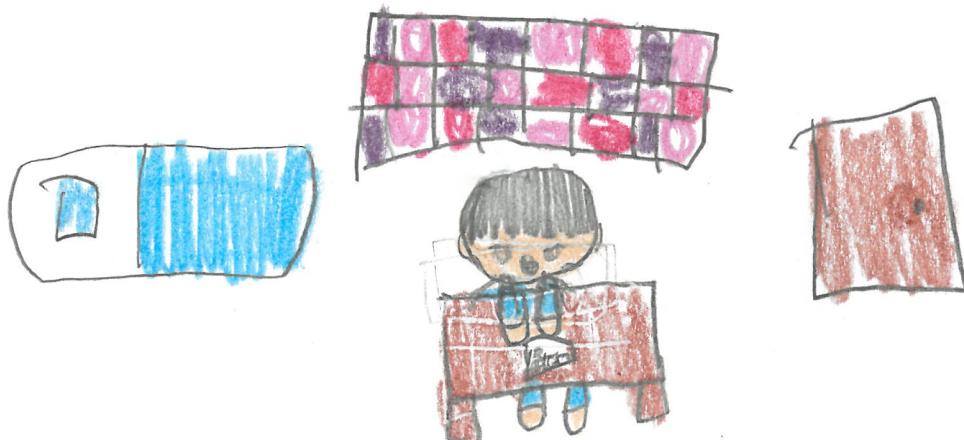
“학교에서 꿈을 발표했는데 꿈이 업아서 지어서 해야  
꿈은지지어서 하는지 않아야 꿈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야”

‘아!’ “알았어요” 우리는 방으로 들어간다.

나의 꿈 나의 꿈은 그래! 나의 장점을 생각하자! 나의 장점은 축구!

나의 꿈은 축구선수야 엄마! 나의 꿈은 축구선수야!

“잘했어!”



# 포도의 꿈

글·그림 최봉

난 포도 꿈이 절여 있다. 다니는 꿈

안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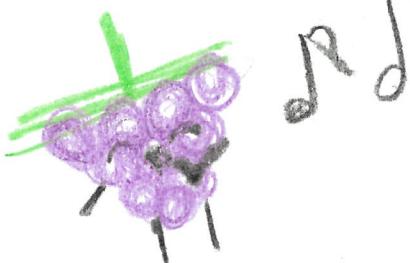
난 포도 꿈이 노래 있다. 하는 꿈



나는 꿈이 많다.

말하는 꿈

사랑받는 꿈  
친구랑 노는 꿈



다 이루어지면 좋겠다



# 콩, 너는 죽었다

글: 강우 택  
그림: 고한 경



콩타작을 했었다.  
콩들이 마당으로 쿵쿵 뛰어 나와

또르르 또르르 굴러 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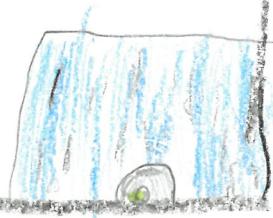
콩 잡아라 저 콩 잡아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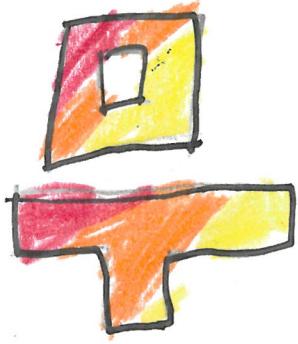
콩 잡으려 가는데

어, 어, 저 콩 좀 보라

주구정으로 쑥 들어가네

콩, 너는 죽었다.





# 무지개 파라솔

글: 유강희  
그림: 김시현

이렇게 낮게 내려온 무지개는

처음 본다네  
아름다운 파라솔 무지개

그러면 옥수수 껌질속 개미야까  
그럼 할매는요? 하고  
물는다네

할매는 이 기특한  
무지개가 도망가지 못하게  
비닐 한 장 더 얹어 꽁꽁 싸맸네

할매는 무지개 모자를 쓴  
이상한 나라 공주님,

심심한 무지개가 복을 타고 내려와  
호박은 호박만 해  
고추는 고추만 해  
감자는 감자만 해  
봉숭아는 봉숭아만 해  
콩은 콩만 해  
시를 올려 지



# 달팽이

글 김용택

그림 노윤채

밤 새워 기어 왔나 봐요.

산 아래 풀잎 위에 달팽이가 쉬고 있네요

산은 높지요.

그러나 저 산을 넘어야 해,

달팽이가 기어갑니다.



# 바람의 길

그 <sup>그</sup> 양재홍 그림 민지우

코 가입은

바람이 드나드는 길이야  
그 길이 있어서

꽃 향기도 들어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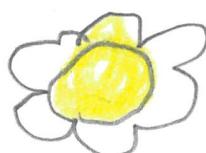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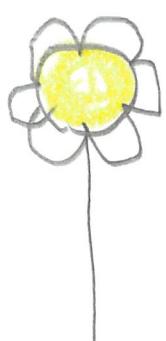
갑갑한 가슴을 씻어내 기도하니  
숨을 쉬니 까

밥 생각도 나고

달콤한 꿈도 자고  
가끔은 공부도 하고 온 거 같다  
만약에 누군가

실로 친친 동인풍 선처럼

바람의 길을 막 아버린다면?



박찬수  
시화

공, 너는 죽었다



김용택 글 박건웅 그림

콩타자 을 하였느니

콩들이 마당으로  
나와 또로 또로 뛰어간다.  
콩잡이라 콩잡이라  
뛰려가는 저 콩잡이라  
콩잡으러 가는데  
어어 저 콩좀 봐라  
쥐구멍으로 쑥 들어가네



콩너는 죽었다.



유기의 시.

여민준 그림



오리굴에 놀랐다

저수지 옆에는 유기

가죽을 뛰어내리는 물고기

엉덩이에 짹는 오리

주둥이로 뭉을 놔는 오리

날개를으로 걸려진하는 오리  
자이언트 아그령 타는  
오리를 땅바닥에 놓았다.

놀랐다. 놀랐다. 놀랐다.  
호떡집이 있고 저수지 향기

나온다.

입

그는 박혜선  
그림 오진우

질 퍽질썩  
질진을 것별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쭉 쭉 빠져는다

내신발을 꿀꺽  
내양말을 꿀꺽  
심지 어내꿀꺽까지

모시 무시한  
것별의  
입



참새

ㅁ



정호승지음

정지애그림

시  
와운민군

휘파람을 불 때  
두루미가 보름달을  
향해 날아가더니  
보름달 속 그로자 라져  
버렸다.  
이 휘파람을 불기 시작했다.

# 산 기 산 그

글 김용탁 그림 윤탁

동생아랑 둘이서  
숲 속에 갑니다

산 봄 봄으로 간 엄마 마중갑니다  
저녁 햇살이 돌아오는 산 오퉁이로  
산 봄 숲의 꽃잎들이  
날아옵니다

봄 바람 타고  
나를 나를 날아옵니다  
한 속도의 바람 터일

동생 마리위에

날아와 앉더니  
봄 바람을 타고  
산 그늘내 텐  
사아래로  
후리마을로

나이 몇 개 날아갑니다  
나비처럼 흘러온다



# 사슴 뿔

글·박덕규  
그림·이예준

사슴아, 사슴아!  
네 뿔은 언제 썩이트니?

사슴아, 사슴아!  
네 뿔은 언제 꽂이피니



# 곰돌이 어이가!

나는 곰돌이 어이가  
비밀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 김가미  
그림. 최지우

어젯밤 자기 전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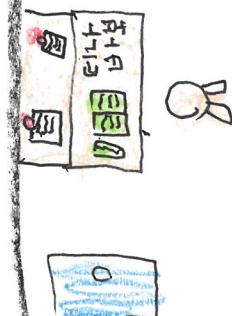
“티나바보”라고 말한 것과  
“티나미워”라고 말한 것

오늘도 자려고 누워서  
비밀 이야기를 하지요

어젯밤 내가 한 말은

진심이 아니야

너도 알지?



여름

글 꾸준오삼  
그림 황성운

해 는 활 활  
매미는 맴 맴

참새는 짹 짹

까치는 깍 깍

나무 잎은 팔랑 팔랑  
개미는 떠는 떠는

묘두묘두 아예 데  
구름만 느릿 느릿

맴 맴

